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 만족도 조사

이인실^{*} · 이윤미 · 장철

^{*}성덕대학교 작업치료과, 구미대학교 작업치료과, 경남정보대학교 작업치료과,

A Survey for Satisfaction Degree on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 in the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Lee Insil, PT, PhD^{*} · Lee Yoonmi, PT, PhD · Jang Chel, PT, Ph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ungduk C.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umi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for in the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and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improvement the curriculum of clinical practice.

Method : This research period was from May 10. 2012 to May 31. 2012. And the subject of was were belonging to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who finished clinical practice.

Results :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ing. As for the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the average point was 3.16 for 5, which was regular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ontent point was 3.47 for 5. In detail, the item of 'clinical practice made us a new experience in relation to curriculum at college' scored 4.01, the highest. By contrast, the internal conflic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scored 2.63. In detail, the answer "I didn't feel sorry for failing this training" scored 2.4, which scored lowest.

Conclusions :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tudents have feel the clinical training is the significant process for being a occupational therapist, and they also have satisfy what they experienced. And we can also tell that some of them have trouble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To improve these problems, students should have confidences by preparing their clinical practice and external voluntary. Furthermore, for better clinical practice, we hope that the study on preparations for clinical practice will continue.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교신저자 :

이인실 072kkangi2@hanmir.com, 054-330-8715

논문접수일 : 2013년 1월 23일 | 게재승인일 : 2013년 3월 5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작업치료는 철학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보건, 의료, 교육, 산업 등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증재를 적용시키는 응용과학이며(creek, 1990), 작업치료사는 작업적 수행이 손상되었거나 손상의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가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이다(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NBCOT], 2008).

작업치료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클라이언트에게 작업치료증재를 적용하여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를 배출하는데 있다(최미경 등, 2004). 그런 점에서 임상실습은 작업치료과 교육과정 중 실무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병원이나 복지관 등 실제로 자신이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이다(박오장, 1978).

작업치료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론을 기초로 한 실습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작업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 기술을 통합해야 한다.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과 실기수행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장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전공과 관련된 기관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파악하게 하여 진로결정을 도와준다(최미경 등, 2004).

그리고, 임상 실습은 작업치료에 대한 단순한 기술 수련이 아니라, 치료 전반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작업치료사 과정으로서의 첫 출발이다. 또한, 임상 실습은 전문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태도와 새로운 학습의 장으로 실습 현장의 실제 및 수직

수평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를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천은숙, 1995). 즉, 임상실습은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써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임상실습 교육은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실습지도가 어려운 현실이다. 김진경 등(2004)은 학생들의 임상실습 중 ‘대학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느낀’ 경험이 각각 40% 이상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작업치료사 협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에 의한 임상실습 교육 지침은 1923년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한 첫 표준이 승인되어 3개월의 임상경험을 요구하였으며, 1935년 9개월, 1973년 6개월 임상실습으로 바뀌었고(Cohn과 Crist, 1995; Presseller, 1983),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미국에서 전통적인 지도 방법이었던 1:1지도가 학생의 수 증가로 적절한 실습이 어려워지면서 더 다양한 임상실습모델들이 연구되었다. 의학적 모델(Cohn과 Crist, 1995; Neistadt와 Cohn, 1990), 수준II 임상실습에 반일제 임상실습(part-time fieldwork)을 포함시키기도 하고(Adelstein 등, 1990), 12개월 인턴쉽 모델(Phillips와 Legaspi, 1995), 협력적 임상실습모델(Hengel과 Romeo, 1995; Nolinske, 1995), 임상실습교육의 그룹모델(Farrow 등, 2002),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들(Mitchell과 Kampfe, 1990)이 있다(이향숙 등, 2010).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1990년대에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임상

실습의 체계를 잡았으나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실습교육과 관련한 만족도나 진로 선택에 관한 국내 연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학과, 간호학과 등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학과에서는 실습모델, 프로그램, 심리적 지지, 임상실습 경험과 관련된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 강윤숙 등(2006), 구혜자(2008), 권혜진 등(2009), 이성은(2001), 이점덕(2006), 한수정(2000)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이정옥, 2003),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강윤숙 등, 2006)등, 진로태도 성숙 중 하위영역인 결정성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하지 않은 학생보다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권혜진 등, 2009).

그 외 ‘물리치료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최병옥, 1996),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김영숙, 2000)등 이와 같이 다른 학과에서는 임상 실습에 대한 선행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작업치료(학)과에서는 이미자 등(2004)의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 교육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임상실습 교육 현황의 기관수와 실습 기간을 조사 분석하였고, 이향숙 등(2010)의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과 희망분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된 조사가 있었지만, 실제적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연구는 김진경 등(2004)의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이후 거의 없어 현 시점에서 임상 실습에 대한 문제점과 교육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임상 실습에 관한 기본 정보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족할만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임상 실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시급하여, 부산을 포함한 5개 지역의 3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상실습의 내용, 지도, 환경, 시간, 평가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임상실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실습 교육 과정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을 포함한 5개 지역의 3년제 대학의 임상실습을 마친 작업치료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임상실습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무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결과 282부(96.8%)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2년 5월 10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해당과에 전화를 통해 협조를 구하였고, 설문지는 우편, 메일발송으로 회수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영혜(2004), 이춘선(2002), 김영남(2001)의 연구의 만족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반적 특성 6문항, 임상실습 5문항, 만족도 36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하위 항목은 임상실습내용, 실습지도 방법, 실습 환경,

실습 시간, 임상 실습 중 느낀 자신의 내적 갈등, 임상 실습 평가, 임상 실습 후 만족감으로 구성하였다(표 1).

표 1. 설문문항

분류	항목
일반적 특성 (6문항)	성별, 나이, 학년, 동기, 전공 만족도, 성적
임상 실습 (5문항)	장소 선택, 실습 시기, 희망 시기, 실습 기간, 실습 장소
만족도 (36문항)	임상 실습 내용(5), 실습지도 방법(5), 실습 환경(7), 실습 시간(3), 실습 중 자신이 느낀 견해(5), 임상 실습 평가(4), 실습 후 만족감(7)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임상 실습 만족도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서는 ‘전문직이라서’가 81명(28.7%), ‘취업이 잘 됨으로’가 63명(22.3%) 순으로 나타났다(표 2).

2) 임상 실습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임상실습 장소 선택 결정권은 학교 지정 기관 중 본인 스스로 실습기관을 선택한 학생이 150(53.2%), 본인 스스로 실습기관을 선택한 학생이 66(23.4%), 학교지정 기관 중 타의에 의해 실습기관을 선택한 학생은 52(18.4%) 순으로 나타났다.

첫 경험한 임상 실습 시기는 1학년 2학기 111(39.4%), 2학년 겨울 방학 102(36.2%), 2학년 여름 방학 45(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시기는 2학년 겨울방학 95(33.7%), 2학년 여름방학 61(21.6%), 2학년 1학기 40(14.2%)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4주간 하였던 학생이 183(64.9%)로 가장 많았으며, 8주가 84(29.8%)로 나타났다. 실습 장소는 재활병원 102(36.2%), 기타 71(25.2%), 종합병원 70(24.8%) 순으로 나타났다(표 3).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전공만족도, 학과 성적, 학년, 학과 입학동기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는 62명(22%), 여자가 220명(78%)이었고, 대상자 나이가 20~22세가 186명(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116명(40.2%)이었으며, 학과성적은 89~80점이 156명(55.3%)로 가장 많고 100~90점이 98명(34.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247명(87.6%)이고, 학과 입학동기에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2)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62(22)	학년	2학년	35(12.4)	
	여자	220(78)		3학년	247(87.6)	
나이	20 ~ 22세	186(66)	적성에 맞아서		34(12.1)	
	23 ~ 25세	62(22)		취업이 잘 되므로		63(22.3)
	26 ~ 28세	20(7.1)	전문직이라서			81(28.7)
	29세 이상	14(5)		고교성적을 고려		16(5.7)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27(9.6)	학과 입학 동기		가족이나 타인의 권유	45(16)
	조금 만족	89(31.6)		입시 자료를 통해		27(9)
	보통	110(39)			기 타	
	조금 불만족	40(14.2)				
	매우 불만족	16(5.7)				
학과 성적	100~90	98(34.8)				
	89~80	156(55.3)				
	79~70	25(8.9)				
	69~60	2(0.7)				
	59이하	1(0.4)				

2.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상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만족도 평균은 3.16이었으며, 임상실습내용이 3.47로 가장 높고, 임상 실습 중 느낀 자신의 내적갈등이 2.63으로 가장 낮았다.

1) 임상 실습 내용에 대한 결과

임상 실습 내용 만족도 평균은 3.47이었고, 세부항목에서는 ‘임상 실습은 학습진도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한다’는 평균 4.01로 가장 높았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원만하게 적용되었다’가 평균 3.09로 가장 낮았다. ‘임상실습서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평균 3.54, ‘실습

기관에서 최신 전공 관련 정보를 많이 습득했다’는 평균 3.55, ‘실습 교육 내용과 범위가 적절하다’는 평균 3.1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표 4).

2) 실습지도 방법에 대한 결과

실습지도 방법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13이었고, ‘임상 실습 담당자는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가 평균 3.44로 가장 높았으며, ‘임상 실습 담당자는 과제를 학생과 함께 계획하고 조직한다’는 평균 2.72로 가장 낮게 나왔다. ‘임상 실습 담당자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실습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평균 2.83, ‘임상 실습 담당자는 학생들을 성의껏 지도한다’는 평균 3.43, ‘임상 실습 담당자 외 타직원들도 실습생의 실습에 협조적이었다’는 평균 3.21의 만족도를 나

타냈다(표 5).

표 3. 임상 실습지의 일반적 특성

(N=282)

	항목	빈도(%)
임상 실습 장소 선택 결정권	학교 지정 기관 중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150(53.2)
	학교지정 기관 중 타의에 의해	66(23.4)
	타의에 의해	52(18.4)
	기타	5(1.8)
첫 경험한 임상 실습 시기	1학년 겨울방학	9(3.2)
	2학년 1학기	111(39.4)
	2학년 여름방학	13(4.6)
	2학년 2학기	45(16)
	2학년 겨울방학	7(2.5)
	3학년 1학기	102(36.2)
	3학년 여름방학	0(0)
	3학년 2학기	4(1.4)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임상 실습 시기	1학년 겨울방학	0(0)
	2학년 1학기	30(10.6)
	2학년 여름방학	40(14.2)
	2학년 2학기	61(21.6)
	2학년 겨울방학	39(13.8)
	3학년 1학기	95(33.7)
	3학년 여름방학	9(3.2)
	3학년 2학기	7(2.5)
임상 실습 기간	4주	1(0.4)
	8주	183(64.9)
	한 학기	84(29.8)
	기타	6(2.1)
임상 실습 장소	의원	9(3.2)
	사회 복지 기관	5(1.8)
	재활 병원	34(12.1)
	종합 병원	102(36.2)
	기타	70(24.8)
		71(25.2)

표 4. 임상 실습 내용

(N=282)

영역	항목	빈도(%)					전체 M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임상 실습 내용	임상 실습은 학습 진도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한다.	99 (35.1)	109 (38.7)	56 (19.9)	13 (4.6)	5 (1.8)	4.01
	임상 실습서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진다.	46 (16.3)	96 (34.0)	109 (38.7)	26 (9.2)	5 (1.8)	3.54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원만하게 적용되었다.	16 (5.7)	77 (27.3)	110 (41.8)	59 (20.9)	12 (4.3)	3.09
	실습기관에서 최신 전공 관련 정보를 많이 습득했다.	52 (18.4)	103 (36.5)	86 (30.5)	31 (11.0)	10 (3.5)	3.55
	실습 교육 내용과 범위가 적절하다.	24 (8.5)	76 (27.0)	122 (43.3)	41 (14.5)	19 (6.7)	3.16
평 균						3.47	

3) 실습 환경에 대한 결과

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24였으며,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임상 실습 지도자의 수는 적합하다’가 평균 3.42로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참고 서적이거나 교육용 자료가 많다’는 평균 2.7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장소에서 실습하는 학생의 수는 적합하다’는 평균 3.34,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습대상이 다양하다’는 평균 3.15, ‘임상 실습 장소로 시설이 적당하다’는 평

균 3.35, ‘구비된 도구들은 임상실습을 위하여 적절하다’는 평균 3.33, ‘임상 실습 도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평균 3.35의 만족도를 나타냈다(표 6).

4) 실습 시간에 따른 결과

실습 시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16이며, ‘계획된 실습 스케줄대로 실습이 이루어진다’가 평균 3.61로 가장 높았고, ‘실습 일수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균 2.88로 가장 낮았다. ‘하루의 실습 시간은 적당하다’는 평균 2.98, 의 만족도를 나타냈다(표 7).

표 5. 실습지도 방법

(N=282)

영역	항목	빈도(%)					전체 M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실습지도방법	임상 실습 담당자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실습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37 (13.1)	87 (30.9)	109 (38.7)	38 (13.5)	11 (3.9)	2.83
	임상 실습 담당자는 학생들을 성의껏 지도한다.	39 (13.8)	98 (34.8)	100 (35.5)	35 (12.8)	9 (3.2)	3.43
	임상 실습 담당자는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37 (13.1)	98 (34.8)	108 (38.3)	31 (11.0)	8 (2.8)	3.44
	임상 실습 담당자는 과제를 학생과 함께 계획하고 조직한다.	20 (7.1)	53 (18.8)	85 (30.1)	76 (27.0)	48 (17.0)	2.72
	임상 실습 담당자 외 타 직원들도 실습생의 실습에 협조적이었다.	25 (8.9)	86 (30.5)	109 (38.7)	47 (16.7)	15 (5.3)	3.21
평균						3.13	

5) 임상 실습 중 느낀 자신의 내적 갈등에 따른 결과

임상 실습 중 느낀 자신의 내적갈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63이었고, ‘대인간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갈등을 느낀 적이 없다’는 평균 3.15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을 잘 수행해 낼 자신이 없어 갈등을 느

낀 적이 없다’가 평균 2.40으로 가장 낮아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다’는 평균 2.65,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느낀 적이 없다’는 평균 2.51, ‘실습을 통해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다’는 평균 2.45로 나타냈다(표 8).

표 6. 실습 환경

(N=282)

영역	항 목	빈도(%)					전체 M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실습 환경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임상 실습 지도자의 수는 적합하다.	31 (11.0)	106 (37.6)	102 (36.2)	36 (12.8)	7 (2.5)	3.42
	한 장소에서 실습하는 학생의 수는 적합하다.	29 (10.3)	96 (34.0)	108 (38.3)	40 (14.2)	9 (3.2)	3.34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습대상이 다양하다.	32 (11.3)	73 (25.9)	97 (34.4)	66 (23.4)	14 (5.0)	3.15
	임상실습을 위한 참고 서적이 나 교육용 자료가 많다.	12 (4.3)	55 (19.5)	97 (34.4)	82 (29.1)	36 (12.8)	2.73
	임상 실습 장소로 시설이 적당하다.	31 (11)	86 (30.5)	122 (43.3)	38 (13.5)	5 (1.8)	3.35
	구비된 도구들은 임상실습을 위하여 적절하다.	31 (11.0)	87 (30.9)	117 (41.5)	39 (13.8)	8 (2.8)	3.33
	임상 실습 도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41 (14.5)	85 (30.1)	101 (35.8)	43 (15.2)	12 (4.3)	3.35
평 균						3.24	

표 7. 실습 시간

(N=282)

영역	항 목	빈도(%)					전체 M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실습 시간	계획된 실습 스케줄대로 실습이 이루어진다.	53 (18.8)	107 (37.9)	86 (30.5)	31 (11.0)	5 (1.8)	3.61
	하루의 실습 시간은 적당하다.	24 (8.5)	60 (21.3)	112 (39.7)	59 (20.9)	27 (9.6)	2.98
	실습 일수에 대해 만족한다.	22 (7.8)	59 (20.9)	102 (36.2)	62 (22.0)	37 (13.1)	2.88
평 균						3.16	

표 8. 임상 실습 중 느낀 자신의 내적 갈등

(N=282)

영역	항 목	빈도(%)					전체 M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실습 중 자신의 내적 갈등	실습을 잘 수행해 낼 자신이 없어 갈등을 느낀 적이 없다.	18 (6.4)	33 (11.7)	58 (20.6)	107 (37.9)	66 (23.4)	2.40
	대학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다.	23 (8.2)	34 (12.1)	80 (28.4)	110 (39.0)	35 (12.4)	2.65
	대인간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갈등을 느낀 적이 없다.	38 (13.5)	63 (22.3)	105 (37.2)	55 (19.5)	21 (7.4)	3.15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느낀 적이 없다.	16 (5.7)	31 (11.0)	88 (31.2)	93 (33.0)	54 (19.1)	2.51
	실습을 통해 진로결정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다.	7 (2.5)	23 (8.2)	109 (38.7)	94 (33.3)	49 (17.4)	2.45
평 균						2.63	

6) 임상 실습 평가에 따른 결과

임상 실습 평가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85였으며, ‘실습 후 실시되는 평가에 불만이 없다’가 평균 3.07로 가장 높았고, ‘실습에 대한 평가 기준을 미리 학생에게 알려 준다’는 평균 2.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가 시 평가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평균 2.85, ‘평가자는 평가 받는 학생의 실습을 충분히 알고 평가한다’는 평균 2.94의 만족도를 나타냈다(표 9).

7) 임상 실습 후 만족감에 따른 결과

임상 실습 후 만족감에 대한 만족도 평

균은 3.45였고 ‘임상 실습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다’가 평균 3.82로 가장 높았으며, ‘전공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평균 3.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다’는 평균 3.36, ‘기술 습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평균 3.60, ‘임상 실습 전에 느꼈던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평균 3.28, ‘작업치료과를 전공한 것에 만족한다’는 평균 3.22, ‘졸업 후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는 평균 3.69의 만족도를 나타냈다(표 10).

표 9. 실습 평가

(N=282)

영역	항 목	빈도(%)					전체 M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실습 평가	실습 후 실시되는 평가에 불만이 없다.	21 (7.4)	61 (21.6)	140 (49.6)	38 (13.5)	22 (7.8)	3.07
	실습에 대한 평가 기준을 미리 학생에게 알려 준다.	11 (3.9)	50 (17.7)	84 (29.8)	71 (25.2)	66 (23.4)	2.54
	평가 시 평가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	10 (3.5)	45 (16.0)	147 (52.1)	52 (18.4)	28 (9.9)	2.85
	평가자는 평가 받는 학생의 실습을 충분히 알고 평가한다.	16 (5.7)	45 (16.0)	148 (52.5)	51 (18.1)	22 (7.8)	2.94
평 균						2.85	

표 10. 실습 후 만족감

(N=282)

영역	항 목	빈도(%)					전체 M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실습 후 만족감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38 (13.5)	81 (28.7)	119 (42.2)	32 (11.3)	12 (4.3)	3.36
	임상 실습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88 (31.2)	87 (30.9)	81 (28.7)	20 (7.1)	6 (2.1)	3.82
	기술 습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59 (20.9)	97 (34.4)	88 (31.2)	30 (10.6)	8 (2.8)	3.60
	임상 실습 전에 느꼈던 불안감이 해소되었다.	38 (13.5)	87 (30.9)	91 (32.3)	48 (17.0)	18 (6.4)	3.28
	전공에 자신감이 생겼다.	32 (11.3)	69 (24.5)	105 (37.2)	61 (21.6)	15 (5.3)	3.15
	작업치료과를 전공한 것에 만족한다.	32 (11.3)	78 (27.7)	108 (38.3)	49 (17.4)	15 (5.3)	3.22
	졸업 후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6 (23.4)	99 (35.1)	92 (32.6)	13 (4.6)	12 (4.3)	3.69
평 균						3.45	

IV. 고찰

임상 실습이란 작업치료를 실제로 클라이언트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학생들의 생각과 자세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김진경 등 2004).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작업치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치료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작업치료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임상 실습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작업치료 임상 실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임상실습을 마친 작업치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여 주었기에 향후 작업치료 임상 실습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본다.

임상 실습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타 논문을 살펴본 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분자와 송경희(2005) 연구는 만족도가 2.74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혜자(2008) 연구는 3.01점, 이순희, 김숙영과 김정아(2004) 연구는 2.91점인 것에 비해 본 연구는 5점 만점 중 3.26점으로 임상 실습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병옥(1996)의 연구는 3.46점인 것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보면 '임상 실습은 학습 진도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한다'가 4.01로 가장 높았으며, 치기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영해(2004)의 연구에서는 3.77,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춘선(2002)의 연구는 3.40으로 본 연구가 타 논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원만하게 적용되었다'의 항목에서는 3.09로 정영해(2004) 3.11과 이춘선(2002) 2.94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습 지도방법에서의 '임상 실습 담당자는 학생들을 정의껏 지도한다'는 3.43로 정영해(2004)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임상 실습 담당자는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는 3.44로 정영해(2004) 3.4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실습지도 방법 문항에서 '학생들을 위해 좋은 실습 분위기 조성'과 실습 담당자가 과제를 학생과 함께 계획하고 조직한다'에서 각각 2.83, 2.72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작업치료사로서의 과중한 업무에 더하여 실습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 작업치료실장이나 작업치료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학생 지도에 대한 일관성과 책임감이 결여되는 것과 관련된다. 실습 환경에서의 '한 장소에서 실습하는 학생의 수는 적합하다'는 3.34로 이향숙 등(2010) 3.45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실습 시간에서의 '하루의 실습 시간은 적당하다'는 2.98로 이향숙 등(2010) 3.64 보다 낮게 나타났고, '실습 일수에 대해 만족한다'도 2.88로 이향숙 등(2010) 3.5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실습 중 느낀 자신의 내적 갈등에서 '실습을 잘 수행해 낼 자신이 없어 갈등을 느낀 적이 없다'가 2.40으로 가장 낮았으며, 김진경 등(2004)의 연구에서도 '실습을 잘 수행해 낼 자신이 없어 갈등을 느낀 적이 있다'가 35% '거의 그렇다'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실습 평가 중 '실습에 대한 평가 기준을 미리 학생에게 알려 준다'가 2.85점으로 상대적으로 임상실습 후 실습평가 부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최병옥(1996)의 연구에서 평가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실습 후 만족감은 ‘임상 실습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3.82, ‘졸업 후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69로 높았으며, 이향숙 등(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상 실습에 대하여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낀다’가 4.26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통해 임상 실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임상실습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임상실습의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

제한점으로는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이므로 전국의 모든 대학 학생들의 조사 결과로 보기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학교마다 실습기간 및 일정이 동일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실습 만족도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요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실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습내용 및 평가 방식, 지도 방식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임상실습을 통해 작업치료전공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례에 적용할 최초의 기회를 갖게 되고 임상교육자의 적극적 지도하에 전문인으로써의 태도와 기술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알아 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작업치료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16으로 보통 정도에서 약간 만족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 내용 만족도가 3.47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임상 실습은 학습 진도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한다’가 평균 4.01로 학생들은 임상 실습이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꼈다. 그런 반면 임상 실습 중 느낀 자신의 내적 갈등이 2.63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세부항목 중 ‘실습을 잘 수행해 낼 자신이 없어 갈등을 느낀 적이 없다’가 2.40으로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임상에서의 차이로 인해 스스로 수행해 낼 자신이 없어 내적 갈등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과 교육 과정 안에서 실습을 위한 준비와 외부적인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감을 기르며,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에 대한 전공 학생들의 만족도를 볼 수 있었다. 작업치료학은 임상학문이므로 임상실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는 작업치료 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임상 실습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치료교육의 발전과 작업치료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운숙, 조희, 노영숙 등(2006).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

- 의 임상실무 수행능력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1), 13-20.
- 구혜자(2008). 간호학생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205-215.
- 권혜진, 김보람, 김소연 등(2009). 서울지역 4년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유,무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이화간호학회지, 43, 41-50.
- 김영숙(2000).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수원여자대학 학술지.
- 김진경, 박소연, 이택영 등(2004). 작업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1), 69-81.
- 박오장(1978). 간호학생임상실습평가에 대한 수간호원의 태도조사연구. 고려대학교.
- 이미자, 김경미, 이재신 등(2004).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 현황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2), 105-117.
- 이성은(2001).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실습경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모성간호학 임상실습 중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2), 333-348.
-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2004).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10(2), 219-231.
- 이점덕(2006). 프리셉터 지도를 받은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춘선(2002). 치위생과 학생의 실습여건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 동남보건대학 학술지.
- 이향숙, 노종수, 차정진 등(2010).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1), 107-120.
- 장분자, 송경희(2005).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국위생과학회지, 11(1), 81-90.
- 정영해(2004).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실태 및 만족도.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경, 전예숙, 홍원주 등(2004).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및 평가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3(2), 373-380.
- 최병옥(1996). 일부 물리치료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3(3), 339-350.
- 천은숙(1995). 교육실습을 통한 교사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한수정(2000).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북돋우기(empowerment)와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32-146.
- Adelstein LA, Cohn ES, Baker RC, et al(1990). A part-time level II fieldwork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4(1), 60-65.
- Cohn ES, Frum DC(1998). The issue is Fieldwork supervision: More educational is warranted.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2(5), 325-327.
- Creek K(1990). The knowledge base of occupational therapy in occupational therapy and mental health. NY: Churchill Livingstone.
- Crist PA, Cooper RG(1988). Nationally speaking—Evaluating clinical competence with the new fieldwork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2(12), 771-773.
- Farrow S, Gaipman B, Rudman D(2002).

- Exploration of a group model in fieldwork education.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7(4), 239-249.
- Hengel JL, Romeo JL(1995). A group approach to mental health field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4), 354-358.
-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Inc(2008). Executive Summary for the practice analysis study: Practice Analysis. Gaithersburg: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Inc.
- Neistadt ME, Cohn ES(1990). Evaluating a level I fieldwork model for independent living skill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4(8), 692-699.
- Nolinske T(1995). Multiple mentoring relationships facilitate learning during field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1), 39-43.
- Mitchell MM, Kampfe CM(1990). Coping strategies used by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during fieldwork: An explo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4(6), 543-550.
- Phillips EC, Legaspi WS(1995). A 12-month internship model of level II field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2), 146-149.
- Presseller S(1983). Nationally speaking—Fieldwork education: The proving ground of the professio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7(3), 163-165.